

롯데백화점 전주점, 아동관 · 이벤트홀 새단장

키즈관 리뉴얼 · 명품 · 키보드 · 장구 팝업 등 다채로운 콘텐츠 선보여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최동희)이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가족 단위 고객과 MZ세대 공략에 나섰다. 아동·유아 전문관을 새롭게 선보이는 한편, 6층 이벤트홀도 확장 개편해 다양한 체험형 팝업 행사를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약 한 달간의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오는 15일 5층 아동·유아 전문관을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반영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5층 전체를 프리미엄 키즈 전문관으로 재구성해 가족 단위 고객 유치에 집중했다.

기존 인기 브랜드인 뉴발란스키즈와 나이키키즈는 매장 규모를 확대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단장했으며, 노스페이스키즈와 아폰떼가 신규 입점했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마리떼프랑소와저버키즈, 22일에는 프리미엄 유아 브랜드 스토리가 차례로 문을 열 예정



롯데백화점 전주점 외관 사진.

이다. 특히 아폰떼는 해외 수입 키즈 브랜드를 강화해 차별화를 꾀했고, 스토커와 마리떼프랑소와저버키즈 등 트렌디한 브랜드 입점을 통해 지역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리뉴얼 오픈을 기념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각 브랜드는 추가 10~20% 할인 혜택과 전주점 단독 특집 상품 등을 선보이며 고객 맞이에 나선다. 이와 함께 6층 이벤트홀도 확장 리뉴얼을 마치고 다양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는 '해외명품

대전'이 열려 구찌, 프라다, 보테가베네타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증정 혜택도 제공된다.

같은 기간 키보드 매니아들을 위한 체험형 행사 '키덕투어' 팝업스토어도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12개 브랜드, 160여 종의 키보드와 액세서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또 1층에서는 '꾸미버스 장구 굿즈' 팝업스토어가 열려 캐릭터 상품과 라이프스타일 굿즈를 선보이며 젊은 소비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2일부터 28일까지는 폴로 랄프로렌, 리바이스, 버버리 등 글로벌 브랜드가 포함된 '제컨핸드 빈티지 팝업스토어'가 열려 합리적인 가격으로 빈티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최동희 점장은 "이번 리뉴얼은 전북 대표 백화점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라며 "차별화된 브랜드와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14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신규 선정기업 5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SW강소기업 5개사 신규 선정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산업 생태계 확산 박차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SW) 강소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 이하 전북TP) 전북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최대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14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신규 선정기업 5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주)아이티스테이션(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주)에드어임(엡지디베이스·가상모사술투션·데이터학습시스템) △(주)모노플로우(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주)한국에너지기

술단(엔지니어링 서비스) △(주)베이지안웍스(AI 기반 도시침수 예측·관제 플랫폼) 등이다.

이들 기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정보보호, 디지털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 플랫폼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전북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SW 서비스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전북TP는 이번 신규 지정기업을 포함해 총 40개사의 SW강소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앞으로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기술사업화와 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청년창업 허위·부실 보증 차단”

사전 점검·리스크 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창업 보증 제도를 악용한 허위·부실 대출 논란과 관련해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외국인을 앞세운 편법 보증 대출'과 '공유오피스 주소지만 등록한 뒤 심사 통과'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도 운영 현황과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신규 보증

규모는 지난 2021년 3,811억 원에서 2025년 8,04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율도 4.0%에서 6.9%로 상승했다.

청년창업보증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청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일반 보증과 달리 재무지표보다 기술성과 사업 가능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증비용 확대와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공유오피스 악용 우려와 관련해 "보증 신청 단계에

서 동일 주소지 여부를 시스템으로 사전 점검하고 있으며, 영업점 직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력 6개월 이내이거나 매출이 없는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심층 심사를 진행하고,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보증 실행 후 4~6개월 내 현장을 다시 방문해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내세운 편법 보증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청년창업 신규 보증기업 1만2,562개 가운데 외국인

대표 기업은 63개로 전체의 0.5% 수준"이라며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확인한 뒤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면담을 통해 사업계획과 기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재무제표 역시 국제청 신고 자료와 현장 자료를 대조해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앞으로 공유오피스 입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 후수가 달라도 동일 공유오피스 건물에 입주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 후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현장 재방문 점검을 실시해 실제 영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김항수 전북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 열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와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전북지방조달청과 정책 소통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14일 도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중앙정부 다수공급계약(MAS) 제도

개선 △MAS 계약 품목 추가 사전심사 자료 제출 간소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품목 포함추천제도 적극 활용 △레미콘 MAS 계약 단가 조정 △항토기업 보호를 위한 관급자재 구매체계 개선 △학교 졸업앨범 품목 MAS 활용 확대 등 총 6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제기된 건의사항과 애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제도 운영과 정책 개선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4일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반적으로 종료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는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

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을 우선 보호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한 농지은행포털을 통한 온라인으로 농지 위탁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도 강화하며, 계약 이후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오상근 기자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 열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농생명·바이오 유망 창업기업 10곳 선정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역 혁신 창업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6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특화역량 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6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를 열고, 도내 농생명·바이오 및 전북 주력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을 갖춘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아래 전북대학교, ECOM융합생물연구원,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20개 기업은 매출 40% 증가와 고용 15% 증가, 투자유치 5개사 등의 성과를 거두며 사업 효과를 입증했다.

올해 선정 기업에는 성장 단계와 기술 수준, 제품화 가능성, 시장 진입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제품화 및 디자인 개발, 기술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시제품 개선,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이다.

또 분야별 전문가와의 1대1 멘토링을 통해 경영 애로사항 진단과 사업모델 고도화,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